

# 신혼, 그 달콤함을 위하여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 www.consult.or.kr

## 신혼기의 적응과제

'부부의 침대에 여섯 사람이 누워있다'라는 표현은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각자가 성장한 가족적 배경에 의하여 상당히 영향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결혼생활에 양가 부모가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하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결혼생활은 그들의 부모들이 보여준 부부생활이다. 따라서 두 사람이 서로의 성장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신혼기의 적응에서 오해와 갈등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된다.

결혼한지 2년된 전업주부 A씨의 경우도 그랬다. "남편은 생활비 외에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하지만 왠지 자꾸 치사한 생각이 들고 남처럼 느껴져요. 내가 사치라도 하면 차라리 덜 억울하겠어요." 이 경우 A씨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지독하게 인색했던 친정 아버지를 연상하며 남편을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A씨의 남편은 부모님이 함께 장사를 하며 공동으로 금전관리를 하는 가정에서 자랐다. 그는 부모를 통하여 부부간의 돈이란 '내 것'이나 '네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이며, 금전관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저축이나 주식운용을 위해 편의상 자신이 통장을 관리하고 있을 뿐 금전 문제에 관한한 자신은 아내와 평등하기 위해 노력하는 좋은 남편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다. 결국 A씨 부부는 금전 문제에 관하여 서로의 가족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연애시절 두 사람의 생각이나 취향이 같아서 자신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자신과 다른 점 때문에 상대방에게 끌렸을 지라도 두 사람이 함께 살게 되면 일상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현실로 맞닥뜨려 풀어나가야 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을 신혼기로 미루지 말고, 결혼전에 점검하고 타협한다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결혼 전 이러한 예측가능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두 사람이 각자의 가족적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화를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결혼 후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겪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부부 각자가 원래의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우리'라는 공동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 부부간 대화기술 '혼수' 필수품

결혼은 새로운 가족관계를 이루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가족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결혼의 중요성과 준비의 필요성은 간과하고 있다. 신데렐라,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야기나, 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에서도 결말은 그들은 결혼해서 그후로 행복하게 살았다 라고 끝나기 때문에 결혼이후에는 아무런 노력이나, 준비 없이도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장미빛 꿈만 갖고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거치는 자연스러운 통과의례로 생각한다.

그러나 20여년 동안 자기 나름대로의 성격을 형성해왔고 다른 생활방식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나의 관계에서 우리의 관계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은 장미빛이라기 보다는 처음부터 많은 갈등의 소지를 가지고 출발하게 된다. 실제로 상담현장에서 만나는 심각한

결혼생활은 나와 다른 사람과 살아 나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질성과 다양성을 지닌 사람과 함께 사는 법을 알아야 한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결혼생활은 갈등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를 가진 중년부부의 갈등은 신혼기 때의 갈등이 미해결상태로 지속되어 문제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부부관계의 규칙을 형성해나가는 신혼기에 대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신혼기에는 연애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가치관의 갈등과 충돌이 많이 일어난다. 서로의 가족에 대해서, 금전에 대한 태도에서, 습관의 차이에서, 가사일 분담에 관해서 갈등이 일어나며, 갈등해결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새로운 갈등, 성과 관련된 갈등도 빈번하다. 이러한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신혼기의 이혼이 증가하고, 절반이상의 가족폭력이 신혼기에 일어나고 결혼기간 내내 지속되고 있다. 신혼여행을 가는 부부들은 이제 신혼여행을 앞으로의 생활을 설계해보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기로 삼자. 가정경제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자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 사소한 습관의 차이가 있을 때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

## 여보--당신 생각은 다르겠지만

건강한 부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 배우자와의 이질성을 소화해 내고, 그 안에서 조화하는 일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출생가족한테서 무형의 유산들을 얻고 나온다. 두 사람의 무형 유산들은 두 사람을 차이나게 만든다. 무형 유산에는 세상살이에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기준, 살아가는 방법,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생

활습관 등이 있다. 사람들은 출생가족한테서 물려 받은 자신의 무형 유산들은 당연하고 옳다고 여긴다. 이것에서부터 경미한 부부갈등이 시작돼 나중에는 해결하기 힘든 갈등관계로 발전한다.

부부들은 결혼 초부터 어느 쪽의 무형 유산을 따를 것인지 신경전을 벌이며 미묘한 갈등에 휩싸인다. 특히 신혼부부들은 더욱 그렇다. 상담소에 찾아와 이런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처방은 "이질성에 대한 수용과 이해"이다. 이들은 배우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과 너무 다르다고 소름끼쳐 하며 배우자와의 차이를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다. 이들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옳은 것이 더 많은 나에게 배우자가 동조해야 하며 나처럼 살아 가야 한다"고 강박적으로 생각한다. 사실 이러한 강박적 사고 자체가 벌써 문제가 된다. 결혼생활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을 판가름해 주는 것 중의 하나는 내가 배우자와의 이질성을 얼마나 지혜롭게 수용하고 조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결혼생활은 나와 다른 사람과 살아 나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질성과 다양성을 지닌 사람과 함께 사는 법을 알아야 한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결혼생활은 갈등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나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보다 열등하다고 결론내려도 안된다. 아울러 부부들은 성장가족으로부터 갖고 온 무형 유산들이 현재의 결혼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부부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면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다. **PPFK**